

어린이·청소년책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비중과 그 의미*

- 2000년 이후 출간된 작품을 대상으로 -

The Proportion and Its Meaning of Character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in Children's and Young Adult Books: Focusing on Books Published Since 2000

임 여 주 (Yeojoo Lim)**

초 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어린이·청소년책 중 이주배경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의 비중을 알아보고, 어린이·청소년책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복한아침독서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한 추천도서목록에 실린 도서 중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분야의 도서 3,214권을 분석한 결과, 약 1%에 해당하는 32권만이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32권 중 23권은 계몽적이며 사회고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4권은 한국 문화로의 통합을 시도하는 내용, 5권은 서로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가 한국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작품의 주요 갈등이 인종차별, 학교폭력, 외국인 부모에 대한 반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사업주의 횡포,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등에 집중된 반면,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가 한국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인종이 백인 혹은 백인 혼혈인 경우에는 장래희망이나 개인적 고민이 작품의 중심 메시지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 중 작가가 자신이 이주배경을 가진 경우는 단 한 권 뿐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Korean children's books that include ethnically and racially diverse characters, focusing on representation of ethnic minority and cultural sensitivity. Drawing from fiction recommendations by Happy Morning Reading from 2005 to 2017, only 32 books out of 3,214 books, less than 1%, include people with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background. Among the 32 books, 23 featured educative messages inspired by the belief of social justice: four could be categorized as so-called 'melting pot' books, five depicted stories featuring characters that respect different cultures from their own. The issue tackled in the stories differed with the economical standing of the character's country of origin. When a character or her/his parent is from a developing country, the main issues of the book were racial discrimination, bullying, hostility against foreign-born parents, or harsh experience of migrant workers. On the other hand, when a character or her/his parent is from a developed country, the plots often surround the character's hopes, wishes, or personal worries. Only one book was illustrated by a person with immigration background; the others were all written and illustrated by Koreans with no immigration background.

키워드: 어린이책, 청소년책, 이주배경, 등장인물, 다문화

Children's Book, Young Adult Book, Immigration Background, Characters, Diversity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1026516).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lim@silla.ac.kr)

논문접수일자 : 2020년 2월 13일 논문심사일자 : 2020년 3월 4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3월 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43-66, 20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1.043>

1. 서론

책은 어린이가 세상을 만나는 첫 매체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가 어린이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와 양육자는 어린이가 책을 통해 세상을 알기 원한다.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알아가며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는 책은 이들의 자아정체성과 세계관의 형성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 Sims Bishop(1990)은 어린이들에게 있어 책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자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과 다양한 삶의 형태가 어린이들이 읽는 책 안에 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ims Bishop(1997)은 책이라는 창문 앞에 선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해 그 창을 열고 작가가 창조해내거나 재창조해낸 세계로 들어가 세상을 만날 수 있으며, 거울의 역할을 하는 책 앞에서는 자신과 꼭 닮은 주인공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겪어 나가는 것을 독자로서 지켜보며 과거와 현재 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사회의 질서와 정의에 관하여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했다.

이주배경청소년¹⁾ 여섯 명과 함께 이주배경 청소년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을 함께 읽어가며

작품에 대한 독자 반응을 분석한 임여주(2016)의 연구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작품에 등장한 인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볼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재구성하며,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보다 튼튼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또한 위축된 모습으로만 나오는 주인공에 대한 거부감과 소심하고 무능력한 외국인 부모님 캐릭터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등 작품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임여주(2016)는 어린이들이 살게 될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회임을 강조하며,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모두를 위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지닌 이주배경청소년 캐릭터와 이주민 캐릭터가 등장하는 문학작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Velasquez(2014)는 이주배경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서부진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 속 이야기가 이들에게 흥미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어린이·청소년책에서는 백인 중산층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주배경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은 백인 중산층이 향유하는 주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에 몰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1)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자녀'로 통칭되는 어린이청소년 집단은 사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현옥 외(2012)는 공간적 차원과 이주 경험을 기준으로 이들을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탈북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아우르는 말로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독서에 흥미를 잃게 된 아이들은 언어능력의 발달 속도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이 이미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주배경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1세 이상 뒤쳐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이지원 2016: 최현욱, 황보명 2009),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책 속 등장인물의 부재는 이들이 한국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2019)에 의하면 전체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반해 ‘다문화 학생²⁾’ 수는 매년 약 20%씩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전체 학생의 2.5%인 약 14만 명 정도가 ‘다문화 학생’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이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에 비해 상당 수준 떨어진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교육부의 통계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탈북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14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진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비이주배경 청소년이 이주배경이 있는 친구들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어린이 · 청소년 책 중 이주배경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오는 작품의 비중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표현 방식과 그 배경에 있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이므로, 다양한 인종의 모습을 담고 있는 해외 번역 도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선행 연구

미국은 어린이 · 청소년책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비중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 시작은 1965년 Nancy Larrick이 펴낸 기념비적인 기사 <The All-White World of Children’s Books(온통 백인들의 세상인 어린이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사에서 Nancy Larrick은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사라졌고 흑인과 백인의 통합교육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이 읽는 책에서 흑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65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어린이 중 14%가 유색인종임에도 불구하고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출판된 어린이책 5,206권 중 백인이 아닌 어린이가 한 명 이상 등장한 책이 349권, 즉 6.7퍼센트 뿐이었으며, 그 중 대형출판사 4곳에서 유색인종 어린이를 등장시킨

2)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한다(교육부 2019).

비율은 고작 4.2퍼센트 뿐이었다. 그나마 출판된 349권 중에서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흑인이 긍정적 혹은 객관적으로 묘사된 작품은 44권 뿐이었으며 그 외의 책에서는 흑인이 노예였던 시절의 이야기,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 부족의 이야기 등을 주로 보여줌으로써 흑인 어린이들의 자아정체감을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Nancy Larrick의 기사가 발표된 이후 미국 어린이문학계와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인종을 다룬 어린이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Broderick (1973)은 1827년부터 1967년까지 출판된 어린이책 중 흑인이 등장하는 작품을 모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827년부터 1967년까지 출판된 어린이책 중 흑인이 등장하는 작품 대부분은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양산하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었다. 고정관념의 심각성 정도에만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백인 어린이를 내포독자로 상정하였고, 백인의 우월함과 흑인의 열등함을 내포독자인 백인 어린이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Sims Bishop(1982)은 작가가 ‘누구에게(to someone)’ 쓰는 이야기인지와 ‘누구에 관해(about someone)’ 쓰는 이야기인지에 따라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는 흑인의 삶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어떤 방식으로 작품에 반영되는지에 집중하며, 1965년 이후 미국에서 출간된 어린이

책 중 흑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 150편을 분석했다. Sims Bishop은 150편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사회적 양심(social conscience)’에 관한 작품, (2) 백인 위주의 주류 사회에 흑인을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멜팅 팻(melting pot³⁾)’ 작품, (3) 흑인으로서의 문화적 경험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경험을 모두 나타내는 ‘문화적으로 의식적인(culturally conscious)’ 작품. 놀랍게도 이 중 ‘사회적 양심’에 관한 책과 ‘멜팅 팻’ 책의 저자는 대다수가 백인이었으며 ‘문화적으로 의식적인’ 작품의 저자는 모두 흑인이었다. Sims Bishop은 이 중 ‘문화적으로 의식적인’ 작품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문화적으로 의식적인 작품’을 만든 저자들이 흑인 어린이가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미지 메이커(image maker)’라고 칭했다. Sims Bishop의 연구는 그 후 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미국 내 소수 인종과 성소수자에 관한 어린이·청소년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Cart and Jenkins 2006; Leu 2001; Quiroa 2004).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육대학 내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Cooperative Children's Book Center(CCBC)는 1994년부터 매해 도서관에 입고되는 어린이·청소년책 중 주요 등장인물이 유색인종인 책의 통계를 만

3)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가 커다란 범주 안에서 한데 섞여 융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이민자 동화정책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던 용어이다. 하지만 이는 이민자들이 본래 갖고 있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기존의 미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현재는 각 민족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의 통합인 ‘샐러드 보울(Salad Bowl)’이 다문화주의를 적절히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들어 발표하고 있다(1985년부터 1993년까지는 주요 등장인물이 흑인인 책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발표했다). CCBC에 따르면 2018년 CCBC에 입고된 어린이 · 청소년책 3,653권 중 주요 등장인물이 흑인인 책은 405권, 아메리칸 인디언인 책은 55권, 아시아/태평양인인 책은 314권, 라틴엑스(Latinx⁴⁾)인 책은 249권이였다(CCBC 2019). 주요 등장인물이 유색인종인 책을 모두 합치면 총 1,023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CCBC에 입고된 어린이 · 청소년책 중 주요 등장인물이 유색인종인 책의 비율은 2015년에 14%, 2016년에 22%, 2017년에 26%로, 해가 가며 조금씩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CCBC에서 발표해오고 있는 이 통계자료

는 1989년 미국의 일간지 USA Today에서 처음 인용한 이후 수많은 매체와 연구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해오고 있다(CCBlogC 2013). 최근에는 이 자료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통계의 요약본을 일러스트로 제작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는 어린이 책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그림 1> 참고).

국내에서는 어린이 · 청소년책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비중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김혜전(2018)은 서울 시내 구립 도서관 2곳과 다문화



<그림 1> Diversity in Children's Books 2018(Huyck, Dahlen 2019)

4) Latinx(라틴엑스)는 중남미(Latin America) 문화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남성을 지칭하는 Latino(라티노)나 여성을 지칭하는 Latina(라티나)를 대체하는 성 중립적인 표현이다.

도서관 2곳을 방문하여 ‘다문화’, ‘다문화가정 유아’ 등을 주제로 검색을 실시한 후, 검색 결과 목록에서 유아 혹은 아동 대상 도서로 분류된 그림책 14권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그림책 속에서 기존 집단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외모로 인해 타인의 주목을 받는 등 ‘다른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작품 속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극복해내고, 자신의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인식하고 외국의 가족들과 교류하거나 외국인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갔다.

임여주(2016)는 10세에서 16세 사이의 다문화가정 자녀 여섯 명과 다문화 문학 텍스트 네 편을 읽어나가며, Brooks와 Browne의 ‘문화에 바탕을 둔 독자반응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에 공감하고 작품에 드러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에 분노하였다. 그들은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모두 무력하게 표현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는 책에서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보다 긍정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를 희망하였다.

박영기(2011)는 다문화주의 동화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피부색과 인종의 차이를 이유로 상투화되고 왜곡된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타자화 때문에 비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분열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어린 까망이의 눈물』을 비롯

한 어린이책 5권을 다문화주의 동화의 좋은 예로 들며,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자신이 가진 혼종성을 독특한 개성과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 인물”(111)이라고 평가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어린이·청소년책 중 이주배경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의 비중을 알아보고, 그 책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어린이·청소년책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 출간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다문화에 관한 담론이 한국 사회 안에서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윤인진 2008). 1990년대 초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시작된 것이 바로 2000년 즈음이다(김남일 2007; 설동훈 2004).

연구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출간된 어린이·청소년책을 전부 검토해야 하지만, 어린이책 분야에서만 연간 평균 7,000종의 책이 출판되는 상황에서 출판된 모든 책을 검토하는 작업은 개인 연구자가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출판유통진흥원 2017). 따라서 매해 출간되는 책 중 어린이·청소년 독자들에게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책을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수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은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추천도서 관련 사이트,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사이트, 인터넷 서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10: 학교도서관저널 2014).

그 중 어린이도서연구회와 행복한아침독서에서 매해 발행하는 추천도서목록은 “매년 꾸준히 신뢰도가 높은 도서목록을 발행”하고 “한 해의 출판경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특히 많은 사서들이 이용하고 있다(학교도서관저널 2014). 어린이도서연구회는 매년 평균 150권, 행복한아침독서는 매년 평균 700권의 도서를 추천도서목록에 올린다. 즉, 행복한아침독서에서 추천하는 도서의 수가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추천하는 도서의 수보다 매년 평균 4-5배가량 많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도서 목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행복한아침독서의 추천도서목록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어린이도서연구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목록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어린이도서연구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도서 중 행복한아침독서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2 데이터 분석

행복한아침독서는 매년 평균 700권을 추천도서목록에 올린다. 행복한아침독서의 추천도서목록은 2005년부터 발행되었으므로 2005년

부터 2017년까지의 추천도서의 수는 약 12,600권(700권 x 18년)이다. 12,600권은 개인 연구자가 혼자 작업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학, 과학/환경/생태, 역사/인물/지리, 예술, 인문/사회/말과글의 다섯 분야 중 문학 분야의 도서만을, 그 중에서도 영유아와 초등학생용 추천도서목록에 올라온 작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행복한아침독서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한 추천도서목록에 실린 도서 중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분야의 도서는 총 3,214권이다. 행복한아침독서에서는 매해 도서명, 출판사, 저자, 대상, 분야, 출간일 등의 정보를 담은 추천도서목록을 엑셀파일로 만들어 발행하는데, 연구자는 그중 영유아·초등학생 문학 분야의 도서 목록을 모아 정리했다. ‘저자’ 항목에서 ‘○○○ 옮김’이라고 되어 있는 도서는 번역서로 간주하였다. 저자가 외국인으로 추측되거나 번역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에서 번역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번역도서가 아닌 한국인 저자가 집필한 도서는 1,632권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는 총 6개월간 경기도 파주시의 도서관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상호대차를 통하여 1,632권의 도서를 일일이 검토하였다. 파주시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로도 구할 수 없는 책은 직접 구입하거나 인터넷서점의 책 소개글과 리뷰, 웹페이지 서치 등을 통하여 책의 내용과 그림을 확인하였다. 검토 결과, 번역 도서를 제외한 도서 1,632권 중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도서는 총 32권이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산출된 32권을 (1) Sims Bishop의 분석 프레임에 따라 분류하고, (2) 각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 국가 또는 배경 국가에 따라 주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3) 저자의 이주배경 여부를 살펴보았다.

Sims Bishop(1982)의 분석 프레임은 소수 인종과 사회적 소수자가 등장하는 어린이문학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모델이다(김경연 2001; Cart and Jenkins 2006; Leu 2001; Quiroa 2004). 이 분석 프레임은 Sims Bishop이 1982년에 발표한 연구 〈Shadow and Substance: Afro-American Experience in Contemporary Children's Fiction〉에서 흑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미국 어린이책 150권을 분석하며 만든 것이다. Sims Bishop은 (1)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사회적 양심(social conscience)'에 관한 책, (2) 백인 위주의 주류 사회에 흑인을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멜팅 팻(melting pot)' 작품, (3) 흑인으로서의 문화적 경험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경험을 모두 나타내는 '문화적으로 의식적인(culturally conscious)' 작품의 세 종류로 150권을 분류하였다.

김경연(2001)은 Sims Bishop의 분석 프레임을 기초로 하여 독일 어린이·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손님노동자'⁵⁾에 대한 인식 변화의 흐름을 연구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0년 간격으로 독일 어린이·청소년문학에서 손님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고 주장하며, 각 시대별 특징을 대표하는 작품을 두 편씩 선정하여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는 손님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려는 계몽의 의도를 가진 책이 주를 이루었다고 지적하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르줄라 뵐펠(Ursula Wölfel)의 『다른 아이들(Die anderen Kinder)』(1970)과 이리나 코르슈노브(Irina Korschunow)의 『11층의 니키(Niki aus dem 10. Stock)』(1973)를 꼽았다. 김경연은 두 작품에서 캐릭터와 플롯, 갈등 구조 등을 통해 나타나는 계몽적 특징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작품들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과 어린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Sims Bishop의 분석 프레임을 기초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분류를 사용하되 각 분류별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두 편씩 선정하여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계몽적 책(social conscious books); (2) 한국 문화로의 통합을 시도하는 책(melting pot books); (3)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책(culturally conscious books).

구체적인 분석은 내러티브 코딩(Narrative Coding)의 방법을 따랐다. 내러티브 코딩은 이야기에 담긴 인간의 경험과 그를 둘러싼 환경 조건을 탐구할 때 주로 쓰이는 코딩 방법으로, 특히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Hatch and Wisniewski 1995; Riessman 2008; Saldana 2009). Bamberg(2004)는 내러티브(이야기)를 단순히 몇 개의 요소로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코

5) 한국어의 '이주노동자'와 비슷한 개념. 당시 독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시 손님처럼 머물다가 곧 떠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님'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딩에서 사용하는 세부 코딩 분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 유형, 장르, 목적, 배경, 플롯, 캐릭터, 성격묘사, 형태, 시점, 중요 요소, 대화(Saldana 2009). 본 연구는 내러티브 코딩 시 개별 문화의 독특한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Saldana (2009)의 조언을 참고로 하여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문화적 배경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신현옥 외(2012)의 연구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정의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와 통계청의 인구 분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설명을 바탕으로, 다음의 인물들을 '이주배경 등장인물'에 포함하였다.⁶⁾

- '다문화' 청소년 - '다문화가족'(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 한국에서 출생하고 양육된 청소년
- 외국인노동자가정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외국인노동자인 가정의 자녀.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노동자가정의 자녀도 포함됨
- 중도입국청소년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 또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경우

- 탈북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대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
- 결혼이민자
- 외국인노동자 -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와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모두 포함
- 북한이탈주민
- 난민

4.1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도서의 비중

행복한아침독서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한 추천도서목록에 실린 도서 중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분야의 도서는 총 3,214권이다. 그 중 번역 도서를 제외한 도서는 1,632권이며, 이 중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도서는 총 32권이다. 즉, 지난 13년간 행복한아침독서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하여 권장한 문학 분야 도서 중 약 1%만이 이주배경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1> 참고).

총 32권 중 이주배경청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은 21권으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천된 문학 분야 도서 중 이주배경청소년이 등장하는 도서의 비율은 1%에 훨씬 못 미치는 0.65%

6)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범위이다. 연구자에 따라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범위를 이와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 외국에서 이민자 2, 3세대로 태어난 해외 동포,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 등은 이주배경 등장인물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1> 행복한아침독서의 영유아·어린이 대상 추천도서목록 중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문학 도서의 수

	영유아·어린이 대상 문학 분야 추천 도서			총계
	번역 문학 도서	국내 창작 문학 도서		
		기타 도서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있는 도서	
2005	191	164	1	356
2007	86	57	1	144
2008	147	101	0	248
2009	46	72	2	120
2010	110	113	5	228
2011	121	128	2	251
2012	132	130	1	263
2013	184	113	5	302
2014	171	171	3	345
2015	140	200	4	344
2016	132	179	3	314
2017	122	172	5	299
계	1,582(49%)	1,600(50%)	32(1%)	3,214(100%)

이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 초등학생의 3.4%가 '다문화 가정' 자녀이다(이 통계에서는 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제외한 '다문화 청소년',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만을 '다문화가정' 자녀에 포함하였다). 실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과 이들이 문학작품에 반영되는 비율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권 중 권장대상이 영유아인 도서는 4권, 권

장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인 도서는 3권, 권장대상이 초등학교 3-4학년인 도서는 10권, 권장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인 도서는 15권으로, 78%(25권)의 도서가 초등학교 중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대상 연령은 출판사와 인터넷서점의 연령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권장대상 연령이 광범위한 경우(예: 초등학교 1-6학년) 연구자가 책의 내용과 어휘의 수준, 텍스트의 길이, 폰트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대상 연령의 폭을 좁혔다.

<표 2> 행복한아침독서의 영유아·어린이 대상 추천도서목록 중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문학 분야 도서의 목록

	책 제목 (단편집의 경우 오른쪽에 해당 단편집의 제목을 표기함)	글작가	그림작가	출판사	출판연도	권장대상	
1	수박	허은순	이정현	은나팔	2012	영유아	
2	안녕, 존	정림	정림	책고래	2015	영유아	
3	우리 가족이야	사과	윤여림	윤지희	토도북	2009	영유아
4	찬다 삼촌	윤재인	오승민	느림보	2012	영유아	

	책 제목 (단편집의 경우 오른쪽에 해당 단편의 제목을 표기함)		글작가	그림작가	출판사	출판연도	권장대상
5	너는 들창코, 나는 발딱코		박현숙	신민재	좋은책 어린이	2015	초1-2
6	멋지다! 안별가족		이종은	김민수	노루 공룡이	2014	초 1-2
7	엄마의 풀꽃반지	라이사 아줌마	원유순	나오미양	아이세움	2009	초 1-2
8	공을 차라 공찬회!		조경숙	우미영	밝은미래	2012	초 3-4
9	김히늘 북한에 가다		한세미	강춘혁	꿈터	2013	초 3-4
10	까만 달걀	사르해! 사르해!	황복실	안은진	샘터사	2006	초 3-4
		까만 달걀	강민경	노석미			
		너희 나라로 가라	김은재	이주윤			
		내 이름은 유경민이야!	김란주	정지윤			
11	내 동생 필립		박현숙	이주희	한림출판사	2016	초 3-4
12	바다 건너 불어온 향기		한아	오윤화	주니어김영사	2014	초 3-4
13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		오미경	신민재	한겨레아이들	2009	초 3-4
14	시뽀의 낚은 수첩		박경태	임연기	잼에듀	2013	초 3-4
15	연두와 밀루		최영미	김상희	계수나무	2008	초 3-4
16	옥수수 할아버지		곽영미	남성훈	다섯수레	2014	초 3-4
17	형, 나를 지켜 줘!		박현숙	김미현	북스토리아이	2013	초 3-4
18	그 고래, 번개	베트남+한국	류은	박철민	샘터사	2012	초 5-6
19	나는야, 늑은 5학년		조경숙	정지혜	비룡소	2009	초 5-6
20	떠돌이 별		원유순	백대승	과란자전거	2015	초 5-6
21	박순미 미용실	연극이 끝나면	더작가	더작가	한겨레아이들	2010	초 5-6
22	달려라 불량감자	안녕 카트린	임근희 외	N/A	푸른책들	2015	초 5-6
23	달콤 매콤	사오	배봉기	장경혜	한겨레아이들	2016	초 5-6
24	모여라, 유랑인형극단!		김중미	오정희	낮은산	2009	초 5-6
25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반 두비	김중미	윤정주	창비	2004	초 5-6
		이주 특별한 하루	박관희				
		혼자 먹는 밥	박상률				
		마, 마미, 엄마	안미란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이상락				
26	색동저고리		문영숙	김은경	크레용하우스	2011	초 5-6
27	선생님이 사라지는 학교		박현숙	이상미	꿈터	2016	초 5-6
28	오늘의 날씨는	모두가 하얀 날	이현	김홍모	창비	2010	초 5-6
29	울지마 산타!		공선옥	김정혜	주니어 RHK	2008	초 5-6
30	투명한 아이		안미란	김현주	어린이 나무생각	2015	초 5-6
31	하이퐁 세탁소		원유순	백승민	아이앤북	2012	초 5-6
32	헬로 오지니		전현정	현숙희	주니어김영사	2016	초 5-6

4.2 Sims Bishop의 분석 프레임에 따른 분류

4.2.1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계몽적 책 (social conscious books)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의 도서 중 23권이 계몽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가 어눌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이주배경이 없는 한국인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나 대부분 괴롭힘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움츠러든 모습을 보인다. 작품에 등장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은 피부색이 어둡고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인종차별과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자신의 피부색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출신국가를 싫어하는 자녀와 갈등을 겪는다. 외국인노동자는 대다수가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된 신분으로 나오며 거의 모든 작품에서 폭력적 단속을 피해 위험한 도주를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말씨로 인해 오해를 사게 되고 탈북청소년은 단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특별히 많이 괴롭히는 ‘나쁜 한국인’과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착한 한국인’이 등장하는 것 또한 계몽의 의도를 가진 작품들의 공통점이다. 『연두와 밀루』의 주인공 연수는 비이주배경의 한국 어린이이다. 대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의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연수는 그곳에서 필리핀에서

온 중도입국청소년 밀루를 만나게 된다. 밀루는 한국말이 서툴고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년을 불문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더러운 깡둥이! 깡씨!”, ‘목욕 좀 하지지!’, ‘폭탄 머리 수세미로 쓰자.’”(19-20), “집에 밀가루 없나? 한 번 발라봐. 얼굴 하얘지게.”(20) 등은 밀루가 수시로 듣는 말이다. 그러나 착하디 착한 밀루는 그에 맞서지 않거나 맞서지 못한다. 밀루를 대신해 싸워주는 것은 일부 정의로운 학생들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연수가 있다. 책의 결말에서 연수는 낡은 신발을 신고 운동회에 참여해야 하는 밀루가 못내 마음에 걸려 엄마의 허락을 받아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밀루의 운동화를 산다.

“형, 이거 신고 달리기 해. 연두)가 주는 선물이야!”

밀루 형은 연수가 건네준 운동화를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운동화를 품에 꼬옥 끌어안기도 하고 불에 비비기도 했어요.

“연두야, 도오타, 던따 도오타.”

연수는 밀루 형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보았지만 연수가 건넨 선물을 받고 밀루 형만큼 기뻐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85-86)

‘착하지만 힘없고 불쌍한’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도와주는 ‘선하고 용감한’ 비이주배경 한국인의 구도는 계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들의 내포독자가 이주배경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은 분

7) 작품 속에서 밀루는 한국어 발음이 어눌해 ‘연수’를 ‘연두’라고 발음한다.

명해 보인다. 작가들은 작품을 읽은 비이주배경 청소년이 선한 마음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밀어주기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작품 속 이주배경 등장인물들은 착하고 힘이 없고 불쌍한 상태여야 한다.

계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과하여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을 무리하게 설정한 작품도 있었다. 단편집 『그 고래, 번개』에 실린 단편 〈베트남+한국〉에서는 십 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이 자신이 출산하고 스스로 양육한 초등학교 아들에게 존댓말을 한다. 저자는 “한국말을 존댓말로 배운 엄마는 아들인 나한테도 높여 말한다.”(59)라는 문장으로 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십 년 넘게 살아온 외국인이 한국어의 반말과 존댓말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2.2 한국 문화로의 통합을 시도하는 책 (melting pot books)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의 도서 중 4권은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기존의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분류에 포함되는 작품은 『수박』, 『너는 들창코, 나는 발딱코』, 『모여라, 유랑인형극단!』, 『투명한 아이』이다. 이 작품들에서도 계몽적인 의도를 가진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주배경 등장인물은 피부색 또는 한국인과 다른 외모에 대한 묘사로 먼저 소개된다. 그들의 외모를 트집 잡는 한국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오히려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을 도와주려는 한국인들이 더 많다. 이 한국인 등장인물

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주배경 등장인물들 못지않게 저마다 커다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비이주배경 한국인이 시혜적인 태도로 더 가진 것이 없는 이주배경 인물을 돕는 행태가 아니라,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한국 사회 안에서 각기 다른 모두가 독립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즉, 등장인물들의 삶의 배경은 한국 내로 제한되며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에 대한 문화적인 탐구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여라, 유랑인형극단!』에는 재개발을 앞둔 동네에서 각자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 이 공동체의 유일한 이주배경 등장인물인 안나는 네팔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사정상 혈연관계가 아닌 한국인에 의해 양육된다. 안나는 본인의 인종적 정체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도 안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공동체 내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안나 역시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갖고 있는 평범한 한국 청소년으로 묘사된다.

『투명한 아이』도 『모여라, 유랑인형극단!』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따뜻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느 날 네 살짜리 딸 ‘눈’을 혼자 키우던 베트남 여성이 사라지자 동네 사람들은 힘을 모아 ‘눈’을 돌보고 실종된 ‘눈’의 어머니를 찾으려 갖은 노력을 한다. 아무 연고지가 없었던 ‘눈’과 ‘눈’의 어머니는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한국 내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고,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던 ‘눈’은 보건소 직원

에게서 임시 번호와 아기 수첩을, 옆집 언니인 보람에게서 “잘 곳, 놀 곳, 배울 것 등 모든 권리가 보장”되고 “우주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153)” 우주시민증과 우주별 여권을 선물 받는다. 우주시민증과 우주별 여권은 이주배경을 가진 ‘눈’과 ‘눈’의 어머니를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비이주배경 한국인들의 마음을 상징한다.

4.2.3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책 (culturally conscious books)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의 도서 중 5권은 한국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여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는 작품은 『안녕, 존』, 『찬다 삼촌』, 『공을 차라 공찬회!』, 『박순미 미용실』 중 〈연극이 끝나면〉, 『하이퐁 세탁소』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이주배경 등장인물 중 일부는 피부색이나 부모님/본인의 출신 국가로 인하여 인종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자신의 주변인에게도 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한다.

그림책인 『안녕, 존』은 베트남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어머니의 고향에 살고 있는 (예전에 만난 적 있는) 강아지 존에게 쓰는 편지를 보여준다. 작품 전체에 걸쳐 글과 그림을 통해 베트남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균형 있게 제시된다. 독자들은 이 책의 주인공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모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이퐁 세탁소』의 주인공 웅이는 베트남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난 아이이다. 웅이는 베트남에 대해 딱히 부끄러운 마음도 없지만 그렇다고 큰 관심이 있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에서 놀러온 친척 형과 이모와 함께 며칠을 지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 웅이는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그러고 보니 나는 베트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와 그동안 안 가르쳐 줬노?”
불만스럽게 엄마를 타박했다.
“내도 모르겠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한국사람 되느라 그리 안 했나?”
아빠가 엄마를 거들었다.
“맞다. 그러느라 내 나라를 잊고 살았제.”
엄마 얼굴이 쓸쓸해졌다. (165)

웅이와 엄마의 깨달음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웅이네 세탁소는 엄마의 고향 이름을 따서 ‘하이퐁’ 세탁소로 이름을 바꾸고 웅이는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한다. 웅이네 가족은 다음 해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다. 웅이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너 같은 아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184)라고 말하며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장선생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웅이의 말 뜻을 교장선생님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교장선생님의 몫으로 남겨둔다. 그것은 이 작품을 읽는 독자의 몫이기도 하다.

4.3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에 따른 주제의 차이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나오는 어린이책 32권을 분석한 결과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에 따라 책의 주제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32권의 도서 중 『까만 달걀』과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는 모두 단편집으로, 각각 4권과 5권의 단편이 분석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분석 대상이 된 작품의 수는 총 39편이다. 총 39편의 작품 중 (1) 외국인노동자가 등장하는 작품은 14편, (2) ‘다문화’ 청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은 13편, (3) 결혼이민자(여성)가 등장하는 작품은 12편, (4) 외국인노동자가 정 의 자녀가 등장하는 작품은 6편, (5) 탈북청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은 4편, (6) 중도입국청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은 3편, (7) ‘다문화’ 성인이 등장하는 작품은 2편, (8) 북한이탈주민이 등장하는 작품은 1편이었다.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청소년, 결혼이민자 여성의 이야기가 다른 이주배경 인물의 이야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다문화’ 성인, 북한이탈주민 등 성인이 등장하는 작품은 39편 중 29편, ‘다문화’ 청소년과 외국인노동자가 정 의 자녀,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작품은 39편 중 26편이다(한 작품에 여러 유형의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류의 총합이 39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를 내포독자로 하는 책에 어린이보다 성인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그린 한국 어린이문학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 국가 또는 부모의 국가는 베트남(12), 북한(5), 필리핀(5), 방글라데시(4), 네팔(3), 몽골(3), 미국(2), 미얀마(2), 태국(2), 파키스탄(2), 영국(1), 인도(1), 인도네시아(1), 중국(1), 캄보디아(1) 순이었다. 베트남이 출신/배경국가인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 다른 나라를 출신/배경국가로 삼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보다 월등이 많았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한국어 유창성은 상, 중, 하, N/A(작품 속에서 등장인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단 한 문장 혹은 한 구절만 말하는 경우도 ‘하’에 포함하였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한국어 유창성은 등장인물의 이주배경별 분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 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은 모두 한국어가 매우 유창한 인물로 등장하는 한편, 중도입국청소년은 모두 한국어가 매우 어눌한 인물로 나왔다.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어 유창성은 ‘상’ 9작품, ‘중’ 5작품, ‘하’ 3작품으로 한국어를 아주 잘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훨씬 많았으며,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상’ 5작품, ‘중’ 1작품, ‘하’ 4작품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은 한국어를 아주 잘 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로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작품 속에 등장하지만 아무 대사도 주어지지 않는 작품도 두 편 있었다. 외국인노동자가 정 의 자녀들도 대체로 한국어를 잘 하는 인물로 등장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은 나라에서 중도입국한 청소년이나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의 경우 갈등의 주요 주제는 인종차별, 학교폭력, 외국인 부모

〈표 3〉 각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이주배경별 분류, 출신 국가/부모의 국가, 한국어 유창성, 갈등의 주요 주제

번호	책 제목 (단편집의 경우 오른쪽에 해당 단편의 제목을 표기함)		이주배경별 분류	출신 국가/ 부모의 국가	한국어 유창성	주요 주제
	1	2				
1	수박		결혼이민자(여성)	베트남	하	이웃과 나눔
2	안녕, 존		'다문화' 청소년	베트남	상	외갓집 여행
3	우리 가족이야	사과	'다문화' 청소년	캄보디아	상	가족
			결혼이민자(여성)		N/A	
4	찬다 삼촌		외국인노동자(남성)	네팔	중	우정
5	너는 들창코, 나는 발딱코		탈북청소년	북한	상	언어 차이와 이해
6	멋지다! 양벌가족		결혼이민자(여성)	동남아국가 ⁸⁾	상	외국인 계모에 대한 반감
7	엄마의 풀꽃반지	리아사 이준마	외국인노동자(여성)	필리핀	중	인종차별
8	공을 차라 공찬희!		'다문화' 청소년	영국	상	여자 축구
9	김하늘 북한에 가다		탈북청소년	북한	상	상호 이해 우정
10	까만 달걀	사르헤! 사르헤!	'다문화' 청소년	필리핀	상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반감
			결혼이민자(여성)		하	
		까만 달걀	'다문화' 청소년	미국	상	
			'다문화' 성인		상	
너희 나라로 가라	'다문화' 성인	베트남	중	어릴 때 헤어진 한국인 아버지		
내 이름은 유경민이야!	'다문화' 청소년	태국	상	인종차별 학교폭력		
11	내 동생 필립		중도입국청소년	필리핀	하	외국인 계모에 대한 반감
			결혼이민자(여성)		하	
12	바다 건너 불어온 향기		결혼이민자(여성)	베트남	N/A	외국인 계모에 대한 반감
13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		'다문화' 청소년	필리핀	상	외국인 엄마에 대한 반감, 가정폭력
			결혼이민자(여성)		상	
14	시뽀의 낡은 수첩		외국인노동자(남성)	방글라데시	상	사업주 횡포 폭력적 단속
15	연두와 밀루		중도입국청소년	필리핀	하	인종차별
16	옥수수 할아버지		북한이탈주민	북한	상	이산가족
17	형, 나를 지켜 줘!		중도입국청소년	베트남	하	인종차별, 학교폭력
18	그 고래, 번개	베트남+한국	'다문화' 청소년	베트남	상	인종차별, 외국인 엄마에 대한 반감, 질투
			결혼이민자(여성)		중	
			외국인노동자(여성)	중국	상	
19	니는야, 늙은 5학년		탈북청소년	북한	상	차별, 한국 적응
20	떠돌이 별		탈북청소년	북한	상	탈북 과정, 난민 생활
21	박순미 미용실	연극이 끝나면	외국인노동자(남성)	버마	상	사업주 횡포, 폭력적 단속

8) “코끼리가 사는 나라”라고만 설명하고 특정한 나라 이름을 명시하지 않음.
 9)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에는 외국인노동자가 두 명 등장한다. 한 명은 한국어가 유창하고 한 명은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른다.
 10) 『울지마 산타!』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등장하며, 이들의 한국어 유창성 역시 다양하다.
 11) 『투명한 아이』에 나오는 이주배경어린이 ‘눈’은 어머니가 베트남인, 아버지가 파키스탄인이다. 작품 속에서 눈은 대사가 거의 없어서 눈의 한국어 유창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책 제목 (단편집의 경우 오른쪽에 해당 단편의 제목을 표기함)		이주배경별 분류	출신 국가/ 부모의 국가	한국어 유창성	주요 주제
22	달려라 불랑감자	안녕 카트린	'다문화' 청소년 결혼이민자(여성)	필리핀	상 하	가정폭력, 외국인 엄마에 대 한 반감
23	달콤 매콤	사오	결혼이민자(여성)	베트남	상	가난, 가족 간의 오해
24	모여라, 유랑인형극단!		'다문화' 청소년	네팔	상	공동체
25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반 두비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방글라데시	상	인종차별, 학교폭력, 미등록 어린이
		이주 특별한 하루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몽골	상	인종차별, 사업주희포
			외국인노동자(남성)		상	
		혼자 먹는 밥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베트남	상	인종차별, 사업주희포, 폭력 적단속
			외국인노동자(여성)		상	
		마, 마미, 엄마	'다문화' 청소년	베트남	상	인종차별
결혼이민자(여성)	상					
블루시아의 가위 바위보	외국인노동자(남성)	파키스탄	상	인종차별, 사업주희포, 폭력 적단속		
외국인노동자(남성)	인도네시아	상) 하				
26	색동저고리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몽골	하	인종차별, 사업주희포, 폭력 적 단속, 가난	
		외국인노동자(여성, 남성)		중		
27	선생님이 사라지는 학교	외국인노동자(여성)	인도	하	인성교육	
28	오늘의 날씨는	모두가 하얀 날	외국인노동자(남성)	방글라데시	상	사업주희포, 폭력적단속
29	울지마 산타!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상	사업주희포, 폭력적단속	
		외국인노동자 ¹⁰⁾		상, 중, 하		
30	투명한 아이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¹¹⁾	베트남, 파키스탄	N/A	인종차별, 미등록어린이	
		외국인노동자		베트남		중
31	하이퐁 세탁소	'다문화' 청소년	베트남	상	인종차별	
		결혼이민자(여성)		상		
32	헬로 오지니		'다문화' 청소년	미국	상	영어 실력

에 대한 반감, 사업주의 희포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등이다. 그러나 백인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주인공인 『헬로 오지니』와 흑인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주인공인 『공을 차라 공찬회!』에서 주인공 어린이들의 고민은 이와 판이하다.

『헬로 오지니』의 주인공인 오지니는 금발에 파란 눈이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지니에게

는 지상 최대의 스트레스이다. 오지니는 한국에서만 자라난,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오지니는 피부색이나 외모로 인해 인종차별이나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는다. 교우관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지니의 관심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뿐이다.

『공을 차라 공찬회!』의 주인공인 공찬회의 아버지는 흑인이다. 공찬회는 아버지와 비슷한 피부색 때문에 과거에 가끔 놀림을 받았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격려와 긍정적인 성향 덕분에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하였다. 공찬회 주

변에는 공찬회를 놀리는 아이가 거의 없다. 오히려 공찬회를 외국인으로 착각하고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 공찬회의 아버지는 영국인이며 수의사이고 축구 심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공찬회의 어머니는 간호사이다.

『헬로 오지니』의 주인공 오지니와 『공을 차라 공찬회!』의 주인공 공찬회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른 작품의 주인공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 - 백인 아버지, 영국인 아버지, 그리고 수의사 아버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배경청소년 대부분이 인종차별, 학교폭력, 가난 등의 문제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반면, 오지니와 공찬회는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과 성격, 장래희망까지 고민한다. 똑같이 이주배경을 가진 인물이라 할지라도 인물의 출신/배경 국가나 인종, 직업적 권위에 따라 인물 묘사의 깊이와 성격까지 달라지는 것이다.

4.4 저자의 이주배경 여부

1965년 이후에 미국에서 출간된 어린이책 중 흑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 150편을 분석한 연구에서 Sims Bishop(1982)은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즉 문화적으로 의식적인(culturally conscious) 작품의 저자가 모두 흑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계몽의 의도를 가진 작품과 백인 위주의 주류 사회에 흑인을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작품의 저자는 대부분 백인이었다. 작가의 문화적, 인종적 배경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관점이 작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의 도서 중 이주배경을 가진 작가가 작품 창작에 참여한 작품은 단 하나뿐이었다. 『김하늘 북한에 가다』의 그림작가는 1998년에 탈북하여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강춘혁 작가이다. 출판사의 소개글에 의하면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 덕분에 더욱 생생한 일러스트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32권의 도서 중 이주배경을 가진 작가가 참여한 작품이 하나뿐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작품 대부분이 계몽적인 작품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Bishop(1982)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작품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즉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책(culturally conscious books)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려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이들이 작가가 되어 어린이·청소년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야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어린이·청소년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시안계 미국인 작가들의 작품이다. 아시안계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어린이책은 2012년에 전체 어린이책 중 2%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무려 7.3%로 성장하였다(CCBC 2019). 2017년 통계조사 결과 아시안계 미국인이 전체 미국인의 5.5%를 차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성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Jenny Han, Gene Luen Yang 등 이 변화의 선봉에 있는 아시안계 미국인 작가들은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어렸을 때 책에서 자신의 모습

(아시안계 미국인 어린이의 모습)을 찾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고 말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아시안계 미국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거울의 역할이 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들은 더 많은 아시안계 캐릭터가 어린이·청소년책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시안계가 아닌 다른 미국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인종적, 문화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도 강조하였다(Han 2018; Yang 2016). 한국 사회에서 소위 '1세대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미 20대 후반이 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어린이·청소년책의 작가가 되어 문화적으로 의식적이며 통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본다.

5. 결론 및 제언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문화를 소재 혹은 주제로 한 어린이·청소년책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2007년 <아동청소년문학학회>에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아동문학을 주제로 특집 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아동문학 전문 계간지 등에서 다문화에 관련한 논문 혹은 대담이 간간히 있었을 뿐,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책의 내용과 독서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비이주배경청소년이 책을 통해 이주배경의 친구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더더욱

없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어린이·청소년책은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 책들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신과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창문이자 미담이문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Sims Bishop 1990). 때문에, 어린이·청소년책에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가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만일, 이주배경청소년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강해 작품 속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인 등장인물에게 각종 혐오표현이 가해질 때, 게다가 그 혐오표현을 내뱉는 주체가 비이주배경청소년인 등장인물일 때, 그것은 단순한 현실의 반영을 넘어 또 한 번의 낙인과 편견의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작품을 읽는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은 각각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투영하게 되고, 작품에서 보여주는 '현실' 속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습득하게 될 수 있다. 동화작가이자 교사인 공진하(2019)는 “독자가 소수자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의 피해와 고통을 잘 드러내야 한다고 여기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의도치 않게 소수자를 전형적인 피해자로 만들어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57)고 했다. 그는 또한 “어떤 작가도 의도적으로 편견을 조장하는 작품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편견은 조장될 수 있고, 그 힘은 의외로 강력하다.”(49-50)고 했다.

본 연구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한

아침독서에서 발행한 추천도서목록에 실린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학 분야의 도서 3,214권을 분석한 결과, 32권의 도서가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중 23권이 공진하(2019)가 우려한, 계몽적 의도가 강한 작품이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기존의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서는 4권, 한국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서는 5권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책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이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주로 계몽적이고 사회고발적인 양상을 띄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또한 이주배경 등장인물과 비이주배경 등장인물이 서로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포함한 도서 32권을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계몽적인 책(social conscious books), 한국 문화로의 통합을 시도하는 책(melting pot books),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책(culturally conscious books)으로 분류하고 표현 방식을 분석한 것은 개별 작품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다. 모든 변화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동반한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작가와 출판사가 그 변화를 어린이·청소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하였으며, 덕분에 본 연구에서 종합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의 도서가 출판될 수 있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이다. 본 연구에서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책(culturally conscious books)'으로 분류한

작품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가족 혹은 지인과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양측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각을 보여주는데, 이는 Mall(2000)의 철학적 해석에 입각한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Mall과 더불어 상호문화철학을 대변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Fernet-Betancourt(1998, 47)은 상호문화적 대화를 "생활양식 또는 근본적인 이론적-실천적 태도"라고 정의하며, "개방, 상대화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의 동학을 통해서 상호문화적 대화는 각 문화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 더 잘 알도록 준비시킨다.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화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고 했다. 『하이퐁 세탁소』의 주인공 웅이는 베트남에서 놀러 온 사촌형 짜이 반 흥이 한국 말을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 것에 짜증을 낸다. 그러나 사촌형은 오히려 웅이가 베트남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에 의아해한다. 사촌형과의 상호문화적 대화를 통해 웅이는 서서히 베트남 문화에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또한 자각하게 된다. 사촌형과의 상호문화적 대화를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 웅이는 엄마, 아빠, 교장선생님 등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태도를 실천해나간다.

사회의 주류인 '나'와 비주류인 '너', 혹은 비주류인 '나'와 주류인 '너'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이슬이슬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의 다름과 같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문화, 즉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 어린이·청소년책을 만들고 활용하고 전달하는 이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작가와 출판사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을 기획하고 집필할 때 그 책의 내포독자를 비이주배경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 모두로 상정함으로써 혹시 있을 수 있는 차별과 편견의 강화를 방지할 수 있다. 사서와 교사는 어린이·청소년에

게 책을 권하거나 그들과 함께 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책을 읽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상호문화적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서 선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와 도서관, 출판계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공진하. 2019. 혐오 표현은 대항 표현과 함께 - 아동문학 속 혐오 표현 훑어보기. 『창비어린이』, 17(1): 48-60.
- 교육부. 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세종: 교육부.
- 국립중앙도서관. 2010. 지식정보DB - 어린이도서 수서 서지도구. [online]. [cited 2020.3.8].
 <https://www.nl.go.kr/ask/search/kb_view.jsp?fclassVal=0&mclassVal=2&lclassVal=&recKey=5043368>.
- 김경연. 2001. 다문화주의와 타자성의 문학적 인식 - 독일어권 아동청소년문학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9): 229-256.
- 김남일. 2007.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방향. 『한국사회학회 2007 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1-19.
- 김혜전. 2018.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사실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가정 유아의 이미지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3): 29-60.
- 박영기. 2011. 한국다문화주의 동화와 혼종적 주체. 『한국아동문학연구』, (21): 111-137.
- 설동훈. 2004.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배경. 『실천문학』, 74: 220-230.
- 신현옥 외. 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여성가족위원회.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지원. 2016.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 임여주. 2016. 다문화 어린이 문학에 대한 독자반응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1): 237-261.
- 최현옥, 황보명. 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출판유통진흥원. 2017. [online]. [cited 2017.9.30]. <<http://www.booktrade.or.kr/>>.
- 학교도서관저널. 2014. 수서는 끝나지 않는다 - 수서를 위한 자료 모음. [online]. [cited 2020.3.8]. <http://slj.co.kr/bbs/board.php?bo_table=library&wr_id=202&sca=%C5%BD%B9%E6&page=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online]. [cited 2017.2.24].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 Bamberg, M. 2004. "Positioning with Davie Hogan: Stories, Tellings, and Identities." In C. Daiute & C. Lightfoot (Eds.), *Narrative Analysis: Studying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in Society* (pp. 135-57). Thousand Oaks, CA: Sage.
- Broderick, D. M. 1973. *Image of the Black in Children's Fiction*. New York, NY: R. R. Bowker.
- Cart, Michael and Christine A. Jenkins. 2006. *The Heart Has Its Reasons: Young Adult Literature with Gay/Lesbian/Queer Content, 1969-2004*. Lanham, MD: Scarecrow.
- CCBC. 2019. Publishing Statistics on Children's Books about People of Color and First/Native Nations and by People of Color and First/Native Nations Authors and Illustrators. [online]. [cited 2020.1.30]. <<https://ccbc.education.wisc.edu/books/pcstats.asp>>.
- CCBlogC. 2013. I See White People. [online]. [cited 2017.3.3]. <<http://ccblogc.blogspot.kr/2013/07/i-see-white-people.html>>.
- Forneet-Betancourt, R. 1998. "Philosophische Voraussetzungen des interkulturellen Dialogs." *Polylog*, 1: 38-53. 재인용: 정창호. 2017. 다문화교육의 반성적 기초로서의 상호문화철학. 『교육의 이론과 실천』, 22(3): 35-69.
- Han, Jenny. 2018. August 17. "An Asian-American Teen Idol Onscreen, Finally: When You See Someone Who Looks Like You, It Reveals What is Possible." *The New York Times*. [online]. [cited 2020.1.31]. <<https://www.nytimes.com/2018/08/17/opinion/sunday/crazy-rich-asians-movie-idol.html>>.
- Huyck, David and Sarah P. Dahle. 2019. *Diversity in Children's Books 2018*. [online]. [cited 2020.1.3]. <<https://readingspark.wordpress.com/2019/06/19/picture-this-diversity-in-childrens-books-2018-infographic/>>.
- Larrick, Nancy. 1965. "The All-White World of Children's Books." *Saturday Review*, 63-65, 84-85.
- Leu, Shwu-ui. 2001. *Struggles to Become "American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Experiences*

- of Asian Pacific American Immigrants in Children's and Young Adult Fiction, 1945-1999*. Ph. 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Mall, R. A. 2000. *Intercultural Philosophy*.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Quiroa, Ruth Elizabeth. 2004. *Literature as a Mirror: Analyzing the Oral, Written, and Artistic Responses of Young Mexican-Origin Children to Mexican American-themed Picture Storybooks*. Ph. 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 Sims Bishop, Rudine. 1982. *Shadow and Substance: Afro-American Experience in Contemporary Children's Fiction*.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Sims Bishop, Rudine. 1990. "Mirrors, Windows, and Sliding Glass Doors." *Perspectives: Choosing and Using Books for the Classroom*, 6(3): ix-xi.
- Sims Bishop, Rudine. 1997. "Selecting Literature for a Multicultural Curriculum." In V. J. Harris (Ed.), *Using Multiethnic Literature in the K-8 Classroom* (pp. 1-19). Norwood, MA: Christopher Gordon.
- Velasquez, Eric. 2014. Diversity and Engaging the Reluctant Reader. [online]. [cited 2017.3.2]. <<https://www.literacyworldwide.org/blog/literacy-daily/2014/04/29/diversity-and-engaging-the-reluctant-reader>>.
- Yang, Gene Luen. 2016, July 7. "Graphic Novelist Gene Luen Yang: Stories are mirrors, windows to life." NBCNews. [online]. [cited 2020.1.31]. <<https://www.nbcnews.com/news/asian-america/graphic-novelist-gene-luen-yang-stories-are-mirrors-windows-life-n60269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ook Trade Promotion. 2017. [online]. [cited 2017.9.30]. <<http://www.booktrade.or.kr/>>.
- Choi, Hyun-Wook and Bo-Myung Choi. 2009. "A Effects of Mother's Korean Abilities on their Children's Korean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4): 315-329.
- Kim, Haejeon. 2018. "A Study of the Perceived Images in Picture Books for the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Published After 2000."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19(3): 29-60.
- Kim, Kyung-Yeon. 2001. "Multiculturalism and Literary Recognition of Otherness - Focusing

- on German Youth Literature.” *Journal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t Adults*, (9): 229-256.
- Kim, Nam-Il. 2007. “Yeollin Sahoe Guhyeoneul Wihan Oeguginjeongchaek Banghyang.”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7 Proceedings of the Bi-annual(Summer) Sociology Conference*, 1-19.
- Kong, Jin-Ha. 2019. “Hate Speech along with Resisting Speech: Searching for Hate Speech in Children’s Literature.” *Changbieorini*, 17(1): 48-60.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5.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nline]. [cited 2017.2.24].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 Lee, Ji-Won. 2016. *A Study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M.A. thesis. Yonsei University.
- Lim, Yeejoo. 2016. “A Study of Readers’ Response on Children’s Books about Multiculturalism: Focusing on the Children of Familie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1): 237-261.
- Ministry of Education. 2019. *2019 Basic Statistics on Educa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Park, Young-Gi. 2011. “Children’s story of Korean Multiculturalism and its Hybridism.” *Korean Children’s Literature*, (21): 111-137.
- Seol, Dong-Hoon. 2004. “The Background of Migrant Worker Issue.” *Silcheonmunhak*, 74: 220-230.
- Shin, Hyun-Ok, Sang-Seok Yoon, Seul-Ki Lee, Do-Hye Kim, Hyang-Gyu Lee, and Soo-Yeon Oh. 2012. *Status of Childre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Seoul: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 Yoon, In-Jin.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2): 72-103.